

약용식물 섬괴불나무(*Lonicera insularis*) 자생지 생육환경 및 입지환경 특성

손용환¹, 김현준^{2*}

¹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, 석사연구원, ²연구사

Natural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and Vegetation Structure of *Lonicera insularis*, Medicinal Plants

Yonghwan Son¹ and Hyun-Jun Kim^{2*}

¹Master's Degree Researcher and ²Researcher, NIFoS, Forest Medicinal Resources Research Center, Korea

섬괴불나무(*Lonicera insularis* Nakai)는 인동과(Caprifoliaceae) 인동속(*Lonicera*) 식물로 우리나라 울릉도에 제한적으로 분포한다. 인동과 식물 중 인동(*L. japonica* Thunb.), 괴불나무[*L. maackii* (Rupr.) Maxim] 등 다수의 분류군이 약리효능이 입증되었으며, 맛이 뛰어나 차, 술, 음료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. 그 중 섬괴불나무는 최근 면역자극 및 항비만 활성 등 다양한 약효가 확인되어 약용자원으로서의 잠재적 가치가 큰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.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특산식물인 섬괴불나무의 적정 자생지를 명확하게 구명하여 보전생물학적 연구, 재배 및 산업화와 같은 현지 외 보전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. 연구 결과, 울릉도에서 확인된 섬괴불나무의 주요 분포지는 4개소로 해안도로 일대에 자생하고 있었다. 입지환경은 해발고도 8-20 m, 사면 방위는 남사면, 경사는 15-30°로 완경사지에서 주로 자생하고 있었다. 방형구(10×10 m) 내 개체수는 5-25 개체로 대부분 군락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. 4개 조사구에 대한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, 조사구는 곰솔 군집(*Pinus thunbergii* Parl.)으로 상층의 발달이 거의 없는 전형적인 해안 식생의 구조로 확인되었다. 관목층은 보리장나무(*Elaeagnus glabra* Thunb.), 송악[*Hedera rhombea* (Miq.) Bean], 머루(*Vitis coignetiae* Pulliat ex Planch.) 등이 경쟁관계에 있었으며, 초본층은 왕호장근[*Reynoutria sachalinensis* (F.Schmidt) Nakai], 갯메꽃[*Calystegia soldanella* (L.) R.Br], 해국(*Aster spathulifolius* Maxim.) 등으로 인하여 섬괴불나무는 피압된 것으로 판단된다. 군집의 안전성, 다양성을 나타내는 척도인 종다양성지수는 1.259, 최대종다양성지수는 1.286, 균재도는 0.979, 우점도는 0.021로 확인되었다.

[본 연구는 국립산림과학원 일반연구사업(사업번호: FP0400-2022-02-2022)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로 이에 감사드립니다.]

*(Corresponding author) mind4938@korea.kr, Tel: +82-54-630-5639